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 동지침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순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선한 목자와 양 II

(요 10:1-6)

이종윤 원로목사

요한복음은 전체가 주옥같이 보배로운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본문은 성도들이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3.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요 10:3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이름을 각각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요 10:3상), 목자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다 내놓은 후에”(4절)라는 말은 목자가 울타리 밖에 계시면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어 모은 후입니다. 이 말은 또한 목자는 양 한 마리도 등한히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 각각의 이름을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먼저 양을 알아서 이름을 부른 후에 양이 목자를 따르므로 목자가 양을 먼저 알고야 양이 목자를 아는 순서가 됩니다.

(1) 목자 앞에 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시 100:3).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뿐만 아니라 그가 길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키워 주시는 그분 앞에 양입니다.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사 40:11). 예수님께서 팔을 넓게 펴시고 품에 안아주시므로 안전을 느낀 양들은 만족함을 느낍니다.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을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감사한 찬송이어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 이 시를 읽게 되면 마음에 힘이 생겨집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감사 시로 읽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 기록된 모든 복을 누리다고 했으니 이것을 나의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결핍된 것이 없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므로 우리는 가장 부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충만한 사람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습니

다.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도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특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찾아봅시다.

첫째, 예수님은 양들에 대해 세밀히 아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나를 모를 때가 있고 가족들도 나를 모르는 점이 많으며 심지어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죄지은 것도 아시고 허물도 아시고 곤고한 중에 있는 것도 아시고 필요도 아시어 그때그때 도우시는 손길을 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양을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선택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구잡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요 11:43)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양을 불러 인도하십니다. 불러낸다는 말은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단사상으로부터, 세속주의로부터, 물질주의로부터, 무신론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불러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2)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세관에서 돈을 받던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마 9:9)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좋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모습입니다.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신앙의 초대에 응한 것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주님 앞에 신앙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악마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 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음성을 듣고 응답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 홍해작전 은혜 중에 마쳐

오늘 찬양예배 시 승전 감사예배

지난 6월 6일(월)부터 시작된 2022 홍해작전이 어제 6월 25일(토) 새벽기도회를 마지막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오늘 6. 26(주) 찬양예배 시간에는 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승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번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는 성도들 되길 바란다.

또한 교회학교별로 진행된 그림그리기, 사행시, 캘리그래피, 글짓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그리기

사랑상

유아부 : 최수아 / 유치부 : 김서환

유년부 : 조하음 / 초등부 : 오승아

믿음상

유아부 : 박시현 / 유치부 : 길리배

유년부 : 김재윤 / 초등부 : 김하윤 유하연

소망상

유아부 : 오유준 / 유치부 : 이채원

유년부 : 한세희 / 초등부 : 김하진 김수아 오선아

장려상

유아부 : 오주빈 / 유치부 : 김제인 심기찬 최아준

초등부 : 김주아 마수민

사행시

사랑상

유년부 : 김채윤 / 초등부 : 한예승

중등부 : 문영은 / 고등부 : 임하린

믿음상

유년부 : 최무건 김이환 / 초등부 : 우정서

중등부 : 한예준 / 고등부 : 장해윤

소망상

유년부 : 정해윤 최은성 / 초등부 : 최무진

중등부 : 우정균 / 고등부 : 유성결

장려상

유년부 : 오수빈 김레아

중등부 : 배은찬 / 고등부 : 윤동현

캘리그래피

사랑상 초등부 : 조건우 / 중등부 : 최주하

소망상 중등부 : 장한솔

장려상 초등부 : 김민서 김하민

글짓기

사랑상 중등부 : 윤서현 / 믿음상 고등부 : 오유나

소망상 고등부 : 박주혁 / 장려상 고등부 : 소혁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 시작하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전 6시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의 시간도 함께

교회는 7월 2일(토)부터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를 갖기로 하였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가 매월 첫 토요일 새벽에 함께 모여, 한 달간 주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찬양과 기도, 말씀과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각 가정의 자녀를 위한 순달의 담임목사의 축복기도 순서가 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새벽에는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므로 한 달을 시작하기 바란다. 7월 2일 토요일 새벽 6시에 그 은혜의 첫 장정이 시작된다.

2022년 6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9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2년 두 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금번 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입교

우정균 윤서영 윤서현 장유정 정우형 조연우
계 6명

· 유아세례
김노아 백나은 심기언 심기찬 조이훈 계 5명
총 11명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장하량 최윤학

이강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나눔의 집 재개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나눔의 집 운영이 교회가 분쟁과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단된 바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사라 전도회(회장 : 이정자 권사)에서 맡아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다.

장소는 9층이며 운영시간은 1부 예부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찬양예배 전 오후 4시까지이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라며 나눔의 집에 기증할 물품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사라 전도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심상필 권사 010-3738-8803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채교전 집사
(2022 흥해작전
예배분과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행전 1:8)"

교회가 그 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에도 서울교회는 농촌전도를 쉬지 않았 습니다. 수년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 있는 대진중앙교회의 김춘기 목사님의 서울교회 성도들을 향한 송별 인사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북단의 땅 끝에서 전도하셨고 둘째로, 가난하고 늙고 병들어 악한 자를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렵게 부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마리아에 가서서 예수님처럼 손을 벌려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늘 서울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노방전도를 하는 첫날 "7년 만에 노방전도를 하게 됐다!"며 은혜와 기쁨과 설레임의 흥분을 감추지 못 하던 김영희 집사님의 외침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 들리는 단비의 복음 양각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모두의 발걸음이 높아졌고 하나님 복음과 2022 흥해작전 승전이 예고되는 출발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찬송과 기도로 준비하고 각자의 마음 속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각오와 기대로 한티공원,은마사거리, 대치사거리로 나누어 오고 가는 시민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흥해 건너기 축제의 초대장을 나누어 주며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전도를 하였습니다.

"어디 서울교회입니까?", "요 앞 서울교회입니까?" 묻는 이, "이제 교회가 안정되었나요?" 관심을 갖는 이, 받은 안내지를 꼼꼼히 읽어보는 이들 등 여러 모습들을 지켜 보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흥해작전을 기도로 준비하며 흥해작전 본부를 잘 이끌고 섬긴 차영도 장로님과 흥해작전 섬김위원님들, 리브가 전도회, 한나 전도회, 마리아 전도회 권사님들의 열심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연합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흥해작전의 여러 행사를 기점으로 말씀이 넘치던 대치동의 예루살렘 서울교회가 다시 팬데믹을 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으로서의 사명을 부흥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아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



한대석 집사
(2022 홍해작전
교육분과장)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홍해작전은 서울교회의 전통으로 그간 수많은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기도 작전입니다.
또한 가족끼리, 이웃끼리 삼삼오오 서로 격려해 가며 3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무장하여 서울교회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 추억이 한가득 있는 시간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교육국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매년 교육국에서는 홍해작전을 기념하여 우리 학생들과 그림그리기, 4행시 짓기를 진행하였고, 홍해작전 기간을 지내면서 글짓기와 또 올해는 캘리그라피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신앙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작품은 이번 주부터 2

층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훌륭한 작품들을 제출한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서울교회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홍해를 건너시느라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새벽기도

윤서현(중등부)

탁한 풀 냄새가 맴돌을 때
새벽녘 이슬이 땅을 적실 때
차가운 공기가 불어올 때

나의 죄를 떨치고
새로운 삶을 위해
향하는 새벽기도

나에게 홍해작전은?

오유나(고등부)

일단 홍해작전하면 제 어릴 때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새벽에 영문도 모른채 일어나 가족들과 교회에 나오면 부모님들에게 이끌려 나온 다른 친구들과 마주치곤 했죠.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놀려고 혹은 찬양 소리를 들으며 자는게 좋아서 홍해작전을 좋아하고 추억이 많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 돌아보니 홍해작전은 저희 서울교회의 뜻깊은 전통이자, 인생에서 걸림돌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실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기회가 있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힘든 일이 있을 때 홍해작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는?

박주혁(고등부)

졸린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행동과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셨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의 나는 나의 삶이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와 어린 나이에 즐리기도 했지만 기도도 드리고 그 보답으로 꿀맛 같은 아침을 주셔서 너무 좋았다

2022 홍해작전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캘리그라피 조건우(초등부)

예수님은 왜 소망이 되실까?

소혁(고등부)

예수님은 죄지는 우리를 구하려고 내려오신 처음부터 우리의 소망이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꺾이지 않는 분이셨기에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찾아가 자신이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려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이 되었고 그 중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캘리그라피 최주아(중등부)



Let's
Pray
God

캘리그라피 김민서(초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지성 성도
(사랑부)



지난 주일 유지성 성도가 드린 26개월간의 십일조 봉투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사랑부 유지성 성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출석하지 못한 지난 26개월 동안의 십일조를 모아서 한 번에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고백과 자신의 기도제목, 교회에 대한 그리움, 사랑부 선생님에게 전하는 짧은 글 등 소박하지만 진솔한 신앙고백들이 빼곡히 적혀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통해 유지성 성도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만이 그 해답



인윤진 목사
(열방공동체교회)

2004년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2005년 4월에 본격적으로 양평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으로 교회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열방공동체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시편 47편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열방공동체교회는 복음, 교육, 선교라는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을 따라 지금까지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복음화 비율이 저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설립과 동시에 ANCA(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어학원을 설립하여 원어민 교사들을 통해 기독교국제대안학교와 오후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신천지를 발단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교회에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성도님들이 거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해 나가면서 결국 '복음만이 그 해답'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교육사역을 접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서울교회의 몇몇 장로님들께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서울교회에서 월 100만 원씩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서울교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매달 물질로 후원해 주심으로 저희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가운데 다시 교육을 시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주일학교 프로그램인 열방 Kings Kids를 2019년 가을에 열어 일 년에 봄, 가을 두 차례(각 12주) 매주 토요일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경 스토리 텔링(Bible story telling)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내용으로 드라마와 그림 그리고 글 쓰기 등과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ANCA 교육 기관 안에 기독교대안학교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Ad Fontes(아드 폰테스, back to the sources)라고 지었습니다. 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유치부(3명), 초등부(5명), 그리고 중등부(1명)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Ad Fontes(아드 폰테스)는 자기 주도학습으로 성경, 독서, 철학,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컴퓨터 수업 등을 9명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과 대안학교를 통해 더욱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일예배 성도님들(어린이 포함)의 예배 참석이 평균 50-6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과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에서 조금씩 교회의 사역이 알려지게 되면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교회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아신대(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ACTS)가 있는데 그곳의 외국인 분들을 모시고 영어예배를 2019년 겨울에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요활동						
09:30	09:30	09:30	09:30	09:30	09:30	09: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30	10:30	10:30	10:30	10:30	10:30	10:3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30	11:30	11:30	11:30	11:30	11:30	11:3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30	13:30	13:30	13:30	13:30	13:30	13:3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30	16:30	16:30	16:30	16:30	16:30	16:3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30	21:30	21:30	21:30	21:30	21:30	21:3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30	22:30	22:30	22:30	22:30	22:30	22:30
23:00	23:00	23:00	23:00	23:00	23:00	23:00
23:30	23:30	23:30	23:30	23:30	23:30	23:3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30	24:30	24:30	24:30	24:30	24:30	24:3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30	25:30	25:30	25:30	25:30	25:30	25:3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30	26:30	26:30	26:30	26:30	26:30	26:3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30	27:30	27:30	27:30	27:30	27:30	27:3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30	28:30	28:30	28:30	28:30	28:30	28:3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30	29:30	29:30	29:30	29:30	29:30	29:3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30	30:30	30:30	30:30	30:30	30:30	30:3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30	31:30	31:30	31:30	31:30	31:30	31:3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30	32:30	32:30	32:30	32:30	32:30	32:3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30	33:30	33:30	33:30	33:30	33:30	33:3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30	34:30	34:30	34:30	34:30	34:30	34:3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30	35:30	35:30	35:30	35:30	35:30	35:3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30	36:30	36:30	36:30	36:30	36:30	36:3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30	37:30	37:30	37:30	37:30	37:30	37:3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30	38:30	38:30	38:30	38:30	38:30	38:30
39:00	39:00	39:00	39:00	39:00	39:00	39:00
39:30	39:30	39:30	39:30	39:30	39:30	39:3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30	40:30	40:30	40:30	40:30	40:30	40:30
41:00	41:00	41:00	41:00	41:00	41:00	41:00
41:30	41:30	41:30	41:30	41:30	41:30	41:30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42:30	42:30	42:30	42:30	42:30	42:30	42:30
43:00	43:00	43:00	43:00	43:00	43:00	43:00
43:30	43:30	43:30	43:30	43:30	43:30	43:30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44:30	44:30	44:30	44:30	44:30	44:30	44:3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30	45:30	45:30	45:30	45:30	45:30	45:30
46:00	46:00	46:00	46:00	46:00	46:00	46:00
46:30	46:30	46:30	46:30	46:30	46:30	46:30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47:30	47:30	47:30	47:30	47:30	47:30	47:30
48:00	48:00	48:00	48:00	48:00	48:00	48:00
48:30	48:30	48:30	48:30	48:30	48:30	48:30
49:00	49:00	49:00	49:00	49:00	49:00	49:00
49:30	49:30	49:30	49:30	49:30	49:30	49:3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30	50:30	50:30	50:30	50:30	50:30	50:30
51:00	51:00	51:00	51:00	51:00	51:00	51:00
51:30	51:30	51:30	51:30	51:30	51:30	51:30
52:00	52:00	52:00	52:00	52:00	52:00	52:00
52:30	52:30	52:30	52:30	52:30	52:30	52:30
53:00	53:00	53:00	53:00	53:00	53:00	53:00
53:30	53:30	53:30	53:30	53:30	53:30	53:3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30	54:30	54:30	54:30	54:30	54:30	54:3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30	55:30	55:30	55:30	55:30	55:30	55:30
56:00	56:00	56:00	56:00	56:00	56:00	56:00
56:30	56:30	56:30	56:30	56:30	56:30	56:3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30	57:30	57:30	57:30	57:30	57:30	57:30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58:30	58:30	58:30	58:30	58:30	58:30	58:30
59:00	59:00	59:00	59:00	59:00	59:00	59:00
59:30	59:30	59:30	59:30	59:30	59:30	59:3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30	60:30	60:30	60:30	60:30	60:30	60:30
61:00	61:00	61:00	61:00	61:00	61:00	61:00
61:30	61:30	61:30	61:30	61:30	61:30	61:30
62:00	62:00	62:00	62:00	62:00	62:00	62:00
62:30	62:30	62:30	62:30	62:30	62:30	62:30
63:00	63:00	63:00	63:00	63:00	63:00	63:00
63:30	63:30	63:30	63:30	63:30	63:30	63:3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30	64:30	64:30	64:30	64:30	64:30	64:3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30	65:30	65:30	65:30	65:30	65:30	65:3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30	66:30	66:30	66:30	66:30	66:30	66:30
67:00	67:00	67:00	67:00	67:00	67:00	67:00
67:30	67:30	67:30	67:30	67:30	67:30	67:30
68:00	68:00	68:00	68:00	68:00	68:00	68:00
68:30	68:30	68:30	68:30	68:30	68:30	68:3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30	69:30	69:30	69:30	69:30	69:30	69:3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30	70:30	70:30	70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로...

박해자 성도 (3교구)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고백과는 다르게 나의 삶은 내 것인 양 욕심을 부립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잘 보이려고, 더 인정 받으려고,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고통받지 않으려고...

말속에 가시를 숨기고 혈기를 부리며 사는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의 아

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찬양가 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새 신자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과 보존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하반기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목표로

기후 위기, 환경오염이라는 단어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에 '위기'라는 단어가 가진 절박함과 긴박함이 많이 희미해졌다. 아직도 기후 위기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거나 혹은 자신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과학적 통계와 수치를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변화를 통해, 기후 위기가 급격히 다가오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회가 앞장서서 이 시대적 사명에

동참하고자 '교회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작한다. 먼저 6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에는 교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편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지구는 더욱 병들 것이다.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의 바른 변화에 공명(共鳴)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예배위원 모집

주일 1.2.3부 예배, 찬양 예배 안내 위원
주일 1.2.3부 봉헌 위원을 모집한다.

* 문의 : 채교천 집사 (010- 6444-2502)

교회 직원 채용 공고

- 경리(회계) 담당, 식당 담당 -

올해 말 정년이 되는 교회 경리(회계) 담당자의 후임 직원과 교회 식당에서 상시 근무할 직원을 미리 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 자격과 조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정

- 식사 제공 : 2교구 이순례 권사 4남 김진훈 성도 (홍해작전 승전을 감사드리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27일	월	시 69-72		딤후 1-3, 몬, 히 1-6	
6월28일	화	시 73-77		히 7-13	
6월29일	수	시 78-79		약 1-5	
6월30일	목	시 80-84		벧전 1-5, 벧후 1-3	
7월1일	금	시 85-89		요일 1-5, 요이, 요삼, 유	
7월2일	토	시 90-95		계 1-10	
7월3일	주일	시 96-102		계 11-22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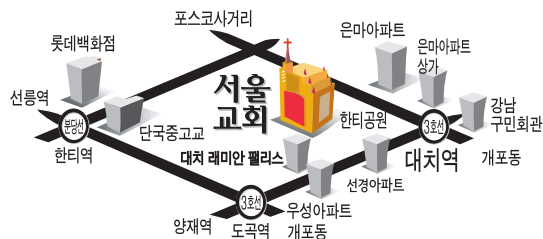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 기간 동안의 새벽기도가 신실한 예배와 섬김, 복음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2. 7월 2일(토) 시작되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에 온 가족이 참여하여 한 달을 기도와 축복으로 시작하는 서울교회 가족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세계경제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로 전진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일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